

## 한국민속관 소개 (韓國民俗館 紹介)

張 籌 根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page 166 사진>

### 一. 연혁(沿革)

1950년 6.25동란(冬卵)을 계기(契機)로 해서 고(故) 송석하(宋錫夏) 선생(先生)의 노력(努力)의 결정(結晶)이었던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이 폐쇄(閉鎖)되었다. 그리고 16년간 우리는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을 가지지 못했고 이 분야(分野)의 활동(活動)을 위한 터전을 상실(喪失)하고 있었다. 고고미술분야(考古美術分野)가 박물관(博物館)을 가지고, 대학(大學)에 사학(史學)과(科)들과 근래(近來)에 와서는 제대로 고고학과(考古學科)도 가졌고 일제시대(日帝時代)부터의 연구성과(研究成果)를 상당수 물려받고 있었던데에 비해서 민속분야(民俗分野)는 그 대부분을 못가진채 오랜 불운(不運)의 세월(歲月)을 가져왔던 셈이다.

그래서 1961년부터 당시, 문화재보호위원회(文化財保護委員會) 제3분과(第三分科)에서는 새로이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의 개설(開設)을 논의(論議)하기 시작했고, 64년부터는 각지방에 지시(指示)하여 민속품(民俗品)들을 계속 수집(收集)해왔다. 65년에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의해서 민속관(民俗觀) 전열품(戰列品) 심의회(審議會)(위원7명)의 구성(構成)을 보았고, 66년초부터는 민속관개설(民俗觀開設)을 위한 활동(活動)이 구체적(具體的)으로 전개(展開)되었다. 그리고보다 규모(規模)가 크고 완전(完全)한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이나 민속촌(民俗村)의 설치(設置)를 기도(企圖)하며 우선 그 준비(準備) 단계(段階)의 첫 출발(出發)로서 경북궁정전(景福宮政殿)(92평)에다 현재(現在)의 민속관(民俗館)의 설치(設置)를 마치고 동 66년 10월 4일에 일단(一段) 개관식(概觀式)을 거행(舉行)하기에 이르렀었다.

그리고 거행(舉行) 제대로의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의 개설(開設)을 보기 위하여 한편 민속품(民俗品)의 주장(主張), 구입(購入)을 계속하고 한편 전국각지역(全國各地域) 각부문(各部

門)의 민속조사(民俗調査)를 계속 노력(努力)하고 있는 중이다. 「민속(民俗)」이라고 한마디로 해치우면 간단(簡單)하고 「한반도(韓半島)」라 한마디로 해치우면 될지 모르나 분야(分野)도 많고 지역(地域)도 넓다. 뿐만아니라 오늘처럼 기계문명(機械文明)의 발달(發達)이 급속(急速)하여 민속(民俗)이 심각(深刻)하게 소멸(消滅)에 직면(直面)하고 있는 시대(時代)도 없다. 상당수(相當數)의 민속학도(民俗學途)의 활동(活動)과 그 활동(活動)에 인화(人和)있는 협동성(協同性)과 조직적(組織的)인 계획성(計劃性)의 부여(附與)가 여기에는 절대(絶對)로 요청(要請)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소멸(消滅)과 변형(變形)을 당하기 전에 하루 속히 전국(全國) 각지(各地)의 각종(各種) 민속품(民俗品) 녹음(錄音)테이프, 슬라이드, 사진자료(寫眞資料) 조사기록(調査記錄)들이 민속관(民俗館)에는 쌓여야 한다. 무(無)에서의 창조(創造)란 있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조직성(組織性) 있는 협동적(協同的)인 노력(努力)의 성과(成果)들인 민속품(民俗品)이나 조사자료(調査資料)들이 여러해 쌓였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의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온 국민(國民)과 온 인류(人類)의 재산(財産)으로서 활용(活用)될 것이며 우리로서는 우리 문화(文化)의 파악(把握) 이해(理解) 재창조(再創造) 선양(宣揚)의 밑천이 될 것이다. 거듭말 할수 있는 것은 한국(韓國)의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을 통해서 이제서 그 구현(具現)을 볼 수 있는 준비단계(準備段階)에 제대로 들어서기 시작(始作)했다고 하는 점이다.

## 二. 전시품 개요(展示品 概要)

현재(現在) 전시관(展示館)인 경복궁(景福宮)내 수정전(修正殿)은 이조(李朝) 왕가(王家)의 학문연구소격(學文研究所格)이던 집현전(集賢殿)이 있었던 곳으로서 92평의 면적(面積)을 가진 건물(建物)이다. 그 전시관(展示館) 옆 사정전(思政殿) 회랑(回廊)의 일부(一部)를 창고(倉庫)(약 30평내외)와 사무실(事務室)(약 5~6평)로 사용(使用)하고 있다.

민속(民俗)의 조사연구(調査研究)는 현재 1. 사회구조(社會構造)(부락(部落), 친족(親族), 가족(家族), 관혼상제(冠婚喪祭) 위주(爲主)의 개인(個人) 평생의례(平生儀禮), 경제(經濟)등) 2. 민간신앙(民間信仰)(무속(巫俗) 부락제(部落祭) 가정신앙(家庭信仰) 유불도(儒佛道) 유사종교(類似宗教) 주술점복(呪術占卜) 등) 3. 산업기술(産業技術)(농업(農業) 수산업(水産業) 수렵채집(狩獵採集) 공예(工藝)등) 사의식주(四衣食住) 5. 민속예술(民俗藝術)(음악(音樂) 무용(舞蹈) 연희(演戲) 세시풍속(歲時風俗) 오락(娛樂)등) 6. 구비전승(口碑傳承)(민요(民謠) 신화전설(神話傳説) 민취(民諺) 미언(謎諺)등)으로 분류(分類) 추진(推進)되고 있으나. 1. 사회구조(社會構造)나 6. 구비전승(口碑傳承)들을 비롯해서 실물(實物)이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장 민속품(民俗品)의 분류(分類)는 1. 복식(服食) 2. 음식(飲食) 3. 주거(住居) 4. 생산기구(生産器具) 5. 신앙(信仰) 6. 예능오락(藝能娛樂) 7. 기타(其他)로 분류(分類) 정리(整理)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전시(展示)도 종합성립체성(綜合性立體性)을 띄는 것이 보다 효과적(效果的)이기 때문에 이 분류(分類)대로는 하지 않고 현재 25개 부분(部分)으로 진열(陳列)되고 있다. 그것은 이 수정전(修政殿)이 본래(本來) 전시실(展示室)로 건축(建築)됐을 리 없는데다가 내부(內部)에 18개의 거대(巨大)한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없이 그 전제(前提) 여건하(與件下)에서 구상(構想)된 진열(陳列)이었기 때문이다. 이하(以下) 그 25개 부분(部分) 전시(展示)의 윤곽(輪廓)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ge 167 사진>

① 사랑방. 도배장판에서부터 이조(李朝)선비들 생활(生活)의 그 간결(簡潔)한 멋을 애써 찾아 백색(白色)의 농선지 도배로 하고, 고미다락의 네짝 문에는 와당(瓦當) 창문(窓門)의 두껍에는 칠언율시(七言律詩)를 써넣고(유희강선생필(柳熙綱先生筆)) 현재(現在) 청결한 유물(遺物)을 찾을 길이 없는 매니킨이 입은 바지 저고리 중치막(석주선선생제작)(石宙善先生製作)들 외는 사방탁자(四方卓子) 문갑(文匣) 잣판위의 모든 연초기구(煙草器具) 서안연상(書案硯床) 발 등 모두 수장된 민속품중(民俗品中)에서 나온 것을 골라서 옛 생활형태(生活形態)대로 배치(配置)하였다. 이 사랑방과 다음의 안방의 진열(陳列)은 여름 겨울 두 계절(季節)로 주인공(主人公)인 매니킨의 의상(衣裳)이 바뀌고, 그에 따라 실내장식구(室內裝飾具)나 생활용구(生活用具)가 바뀐다.

② 안방. 안방도 상황(狀況)은 마찬가지로여서 고미다락과 창문(窓門)의 두껍에 각각(各各) 사군자(四君子)와 화조(花鳥)를 그려 붙였는데 이 필자(筆者) 제당(霽堂) 배경화백(背景畫伯)이 지금은 고인(故人)이 되어서 더욱 전아(典雅)한 그 문기(文氣)를 이 안방에 감동케 해주고 있다. 도배 장판 매니킨 의상(衣裳)(석주선선생제작((石宙善先生製作))등 다 마찬가지로이고, 버선장 사방탁자(四方卓子)발 반깃고리 외 재봉구(裁縫具) 옷방의 장롱종류(櫥籠種類)들 일체(一切)가 옛 유물(遺物)의 배치(配置)이다.

이조(李朝) 양반사회(兩班社會)의 주택구조(住宅構造)는 유교윤리(儒教倫理)와 봉건신분성(封建身分性)의 작용(作用)으로 예외(例外)없이 男(사랑채) 女(안채) 하인(下人)(행랑채)의 세 세계(世界)로 구분(區分)되어 있다.

셋째는 혼례식(婚禮式)이다. 제대로 하자면 장가들고 시집가는 장면(場面)들과 채단을 드리는 납폐(納幣), 그리고 전안(奠雁), 초례(醮禮), 신방(新房), 신부(新婦)가 시부모(媳父母)를 비롯한 시댁(媳宅) 사람들에게 인사(人事)하는 관례 등 기타(其他) 여러 절차(節次)들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순서(順序)대로 진열(陳列)했으면 좋았겠으나 역시 소장관계(所藏關係)로 대표(代表)로서 초례장면(醮禮場面)만을 그것도 다시 전시(展示) 할 수 없는 형편(形便)이었다. 진열(陳列)은 실제(實際) 사용(使用)되던 민속유물(民俗遺物)을 고정해서 다소 낡았으나 사모관대(紗帽冠帶)에 화관(花冠) 활옷을 매니킨에 입혔고 상(床), 기명(器皿) 들까지 그렸으나 용떡밥 대추 곶감 팔등은 장기(長期) 전시(展示)에는 별레가 먹어서 모조품(模造品)을 전시(展示)

했다.

넷째로는 관내(管内) 구석을 비워놓기가 아쉬워서 평상(平床)에 죽부인(竹夫人)을 놓았는데 학교교육(學校敎育)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고등학교(中高等學校) 대학(大學)의 국문학과정(國文學科程)에서 의례 다루는 한국(韓國) 창작(創作) 소설문학(小說文學)의 초기(初期) 맹아상태(萌芽狀態)를 보여주는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대표적(代表的)인 대문장가(大文章家) 백운(白雲) 이규보(李奎報)의 「죽부인전(竹夫人傳)」 때문이다. 이 작품(作品)이 단순(單純)히 대나무 의인화소설(擬人化小說)인줄 알고 있던 교직자(敎職者)나 학생(學生)들이 「죽부인(竹夫人)」의 정체(正體)를 여기서 알고 가는 사례(事例)가 적지 않다.

윤백영(尹伯榮)할머니(81세)께 현품(現品)을 놓고 들은 바에 의하면 죽부인(竹夫人)은 부자(父子) 조손(祖孫) 삼촌족하 오촌(五寸)까지는 상피본다해서 같은 부인(夫人)이 혼동(混同)안 되게 청직(廳直) 이들이 조심(操心)해서 간수했다고 한다.

다섯째는 화혜류(靴鞋類)이다. 男女 노소(老少) 上下 청우용(晴雨用) 신발을 조금씩은 다 분류(分類) 전시(展示) 하느라고 했으나 실은 신발만이 문제(問題)가 아니라 역시 男女 노소(老少) 上下 청우(晴雨) 길상(吉喪) 각종의 관모류 의장류가 수집전시(蒐集展示)가 돼야겠지만 아직 다 수집(蒐集)도 안되고 더구나 전시(展示)할 장소(場所)도 없다.

여섯째는 그래서 장소(場所)를 덜 잡는 장신구(裝身具)를 중간에 2개의 테이블 케이스로 전시(展示)했다. 하나에는 뒷꽂이 26개 귀이개 6개 각종(各種) 비녀 18개, 떨잠 3개 귀걸이 1개가 전시(展示)됐고 또한 테이블 케이스에는 2개의 대삼작과 13개의 장도, 19개의 노리개 4개의 덧돈들이 전시(展示)되고 있다.

일곱째로는 각종(各種) 부채와 전주들 도합(都合) 29점, 여덟째는 갓공예(工藝)의 제작도구(製作道具)와 제작과정(製作過程)에 따르는 재료(材料)들을 그 양태 총모자 갓모으기등 삼분업별(三分業別) 순서(順序)대로 간추려 전시(展示)했다. 여기 도구(道具)들은 고유상운용의 유물 일체(遺物一切)와 모만환용 고재구용들에게 새로 작만하도록 대가(代價)를 들이고 양도(讓渡) 받는 것으로서 그 죽세공성(竹細工性)에 있어서는 실로 세계적(世界的)이나 아마도 마지막이 될 갓장인(匠人)들이 실제(實際) 사용(使用)하던 것을 언뜻 보기에 볼품은 없었지 모르나 민속적(民俗的)으로는 앞으로 장구(長久)한 세월(歲月)이 흐를수록 대단(大壇)히 의의(意義)있는 전승품(傳承品)들이 될 것이다.

아홉째는 음식기구(飲食器具)로서 차식판(茶食板) 떡살 약과판(藥果板)에 곱들솔 옛전골남비의 원형(原形), 옥석(玉石)주전자들 20여점이며 열째로는 상(床)차림으로서 주안상(酒案床) 점심 상들의 세 개를 놓았다. 이셋은 그 상형태(床形態)들이 각기 다른 동시(同時)에 때와 경우(境遇)가 달라서 선정(選定)된 것이지만 상(床)은 상(床)대로 기명(器皿)은 기명(器皿)대로 음식(飲食)은 음식(飲食)대로를 다 보이려고 욕심(慾心)을 부려 본 것이다. 겸(兼)해서 시대(時代)도 신라(新羅) 고려(高麗) 이조(李朝)로 삼왕조(三王朝)쯤 보이고, 주안상(酒案床)은 고려청자(高麗靑瓷)들로 멋을 부려보고 싶은 욕심(慾心)도 느꼈었으나 아직은 자료(資料)의 구비(具備), 재력(財力), 경비상황(經費狀況)등 능력(能力)이 부족(不足)한 실정(實情)이다.

열한번째는 각종 조명구(照明具) 10여점, 열두번째는 호패(號牌)의 오신분계급별(五身分階級別)의 10여점 열세번째는 베킷모의 자수(刺繡) 나전칠기공예(螺鈿漆器工藝)들을 우선(于先) 전시(展示)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繼續)하해도 화각(華角) 베킷모쯤 하나가 전시(展示)돼야 겠으나 아직 입수(入手)를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韓國) 화폐(貨幣)를 사적순서(史蹟順序)대로 관람객(觀覽客)이 언뜻 납득(納得)할 수 있게 전시(展示)하려는 구상(構想)을 애초부터도 가져보았었으나 아직 실현(實現)을 못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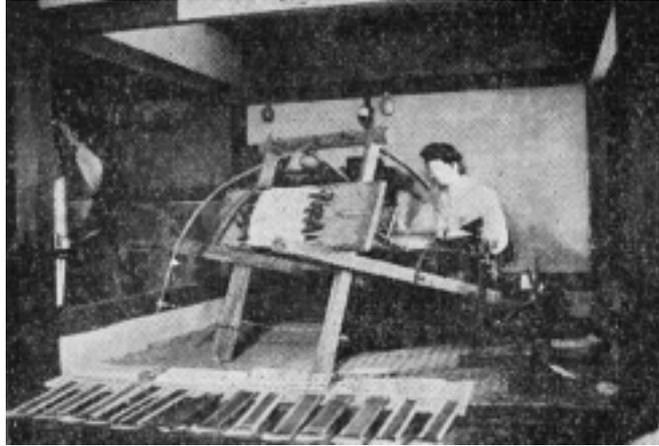
열네번째는 가면(假面)이다. 현재(現在)로서는 양주별산대(楊洲別山台) 놀이의 바가지제 가면(假面)과 봉산(鳳山)탈춤의 지제가면(紙製假面) 10여점이 전시(展示)됐고, 가면(假面)과 의상(衣裳)으로서는 가장 색조(色調)가 현란(絢爛)한 봉산(鳳山)의 가면(假面)을 매니킨에게 써워서 포오즈를 잡고 다른 장소(場所)에서 전시(展示)한 일도 있었으나 여기서는 장소관계(場所關係)로 倉庫에 넣어두고 있다.

열다섯째는 6매의 무신도(巫神圖)를 선정(選定) 전시(展示)했던 후에 그 밑에 각종(各種) 무구(巫具)를 진열(陳列)했는데 춘추(春秋)로는 가끔 할머니들의 소박(素朴)한 지성(至誠)의 흔적들도 놓이곤 했다.

열여섯째는 2종의 장생(長生)이다. 하나는 전시관(展示館) 구석의 것으로 솟대도 곁들여진 부락입구(部落入口)의 예로서 여기서 서울 70리이천 70리등으로 이정표(里程標) 구실(口實)까지 분명(分明)한 것이며 하나는 경남(慶南) 하동(河東) 쌍계사(雙溪寺)에 있던 사찰(寺刹) 입구(入口)의 예로서 전부터 사계(斯界)에는 알려져 있던 육중(肉重)한 걸작(傑作)이어서 민속관(民俗館)의 상덕(象德)으로서 중앙(中央)에 모셔져 있다.

열일곱째는 서당교육(書堂教育)으로서 하단(下段)은 사판(사판) 분판(粉板) 서첩(書帖)등 학생(學生)의 습자용구(習字用具)들, 중단(中段)은 역시 학생(學生)의 기본적(基本的)인 교과과정(教科課程)의 교과서(教科書)를 순서(順序)대로 천자문(千字文)(한석봉필목판본)(韓石峯筆木版本)부터 사서삼경(四書三經)까지 76권을 놓았고 상단(上段)은 훈장용(訓長用)의 필통 연상(硯床) 서안(書案)에 초달 벽면에는 유모러스한 단원(檀園)의 서당도(書堂圖)의 복사품(複寫品)을 곁들였다.

열여덟째는 문방구(文房具) 일체(一切), 열아홉째는 매듭류 스무째로는 제주도(濟州道) 민속품(民俗品)들이다. 다시 관내(館內) 기둥의 일례(一例) 총립(叢立)으로 공간(空間)이 넓어져서 제주도(濟州道)의 특징(特徵)인 해녀조상이 가장 소박(素朴)하고 편리(便利)한 해중작업복인 물적삼에, 물소중이를 입고, 머리에 수건과 눈(수중안경(水中眼鏡))을 쓰고, 태와과 망실(그물)을 어깨에 메고 전복등을 따내는 빗창을 허리에 차고, 미역들을 따내는 점개호미를 손에 들고 그 육체(肉體)와 골격(骨格)의 구조(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수(優秀)한 특유(特有)의 작업복(作業服)으로서 비맞아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땀, 때가 묻어도 더럽지 않고, 냄새안나고, 삭지 않으며 세탁(洗濯)에 비누 풀의 필요(必要)가 없고 질긴 「갈옷」을 입고, 그 옛날 제주(濟州) 귀양살이에서 추사(秋使)(소치(小痴) 허유필 초상화(肖像畫))가 썼던 그 멋진 「패립」을 쓰고 긴낫을 들고 서 있으며 특이(特異)한 「남방애」 등 많은 민속품들이 남국(南國)의 정서(情緒)를 풍기며, 초가(草家)추녀.벽등에 걸리고 마당에도 진열(陳列)되었다.



<page 169 사진>

스물한째로 탈곡기구(脫穀機具)들 스물둘째로 정미기구(精米機具)들 스물세째로는 직기구조(織器構造)들의 핵심적(核心的) 기구(器具)들만이 360리 × 250리의 좁은 세공간(空間)에 진열(陳列)되어 있다. 이들은 경서(耕鋤), 파종(播種), 시비(施肥), 관개(灌溉), 수확(收穫), 운반(運搬)등등 많은 과정(過程)중에서 선택(選擇)된 것으로서 다 목재(木材)로 돼 있기 때문에 현금 대부분 이미 사용도지 않고 헛간에서 썩어 가고 있다. 머지 않아 그 대부분은 석기시대(石器時代)의 석기유물(石器遺物)들보다도 희귀(稀貴)한 존재(存在)가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들 일부는 이미 없어졌고 일부는 풍전등화격(風前燈火格)이고, 일부는 계속 남고 변형(變形)돼갈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至今)부터 완급(緩急)을 가리며 틈틈히 후손들에게 이들 물질지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노동, 경제, 정신들을 보여주어야겠다.

지금부터라도 전농경(全農耕)의 과정 전직조의 과정들의 수집 전시가 시작되어야겠지만 전시는 둘째로 치고, 수집 보관에도 현재로서는 창고가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상 세 분야(分野)들은 현재(現在)까지 농본국(農本國)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속적인 색조(色調)와 비중(比重)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部分)으로서 특히 일부 과학기술(科學技術)사가들에 의해서는 예컨대 지금도 화전민지대(火田民地帶)에 특수(特殊)물방아들은 고색(古色)을 다분히 지닌 역학적(力學的) 물리(物理) 구조(構造)를 지닌 것으로 주목이 되어오고 있다.

스물네째는 벽면(壁面)의 전국지도판(全國地圖板)에 호미 형태(形態)의 지역차(地域差)가 실물(實物)들로서 걸려있으나 북한(北韓)의 소수(小數)의 호미는 그 지역(地域) 출신(出身) 인사(人事)들의 조언(助言)으로 새로 베푼 것이 개중에는 유사하지 못하다는 것도 생겼다.

스물다섯째는 전시관(展示館) 입구(入口) 좌우(左右)의 두쪽의 풍속도(風俗圖) 팔병이다. 우리 옛날의 풍속도(風俗圖)는 그 종류(種類)가 허다하지만 이 하나는 돌잔치에 회흔례까지 사람의 한 평생(平生)의 중요(重要)한 8단계(段階)를 보인 것이고, 또 하나는 1년. 농사(農事)의 순서(順序)를 팔장면으로 보인 것으로서 이러한 평생도(平生圖)와 경직도(耕織圖)를 제작(製作)한 이조(李朝) 화가(畫家)도 많았던 가운데에서 그 구도(構圖)나 필치(筆致)에 있어서 가장 걸작(傑作)으로 여겨지는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1760~?) 작의 모사품(모사(模寫)품)이다. 덕수궁(德壽宮) 미술관(美術館)의 원품(原品)이 퇴색(退色)이 심할뿐더러 유일(唯一)한 원품(原品)을 내놓을 수도 물론 없었던 것이다. 이들 이조화원(李朝畫員)들의 그림은 오늘날로 말하

면 일종의 사진관습(寫眞慣習)등 세부적(細部的)으로 각 방면(方面)에 귀중(貴重)한 참고(參考)와 증거(證據)를 제시(提示)해주는 것으로서 사전(辭典)들의 설명(說明)을 수정(修正)시켜 줄 부분(部分)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풍속도(風俗圖)들은 민속관(民俗館)으로서는 중요한 수집대상물(收集對象物)의 하나로 여겨야 되겠다.

### 3. 수장품(收藏品), 관광객(觀光客), 직원(職員)

#### 1. 수장품(收藏品)

현재(現在)의 수장품(收藏品) 상황(狀況)은 다음과 같다.

#### 1. 복식부문(服飾部門) 475점

- |                     |                 |
|---------------------|-----------------|
| 1. 관모류(冠帽類) 102     | 2. 의상류(衣裳類) 63  |
| 3. 화혜류(靴鞋類) 56      | 4. 장신류(藏身類) 205 |
| 5. 복식제작구류(服食製作具類)30 | 6. 기타(其他) 19    |

#### 2. 복식부문(服食部門) 344점

- |                       |                  |
|-----------------------|------------------|
| 1. 음식제작구류(飲食製作具類) 49점 | 2. 기명류(器皿類) 269점 |
| 3. 반상류(盤床類) 26점       | 4. 기타(其他)        |

#### 3. 주거부문(住居部門) 383점

- |                    |                   |
|--------------------|-------------------|
| 1. 장롱류(櫥籠類) 35     | 2. 침석구류(寢席具類) 32  |
| 3. 조명구류(조명구류) 42   | 4. 연초구류(煙草具類) 29  |
| 5. 함(函), 대, 상자류 33 | 6. 문방구류(文房具類) 123 |

#### 4. 생산부문(生産部門) 106점

- |                  |                  |
|------------------|------------------|
| 1. 농경구류(農耕具類) 53 | 2. 직조구류(織造具類) 44 |
| 3. 무교(巫敎) 56     | 4. 기타(其他) 3      |

#### 5. 신앙부문(信仰部門) 121점

- |              |              |
|--------------|--------------|
| 1. 유교(儒敎) 50 | 2. 불교(佛敎) 3  |
| 3. 무교(巫敎) 56 | 4. 속신(俗信) 12 |

#### 6. 예능오락부문(藝能娛樂部門) 75점

- |               |                |
|---------------|----------------|
| 1. 도박구(到泊具) 7 | 2. 연희류(演戲類) 67 |
| 3. 악기류(樂器類) 1 | 4. 기타(其他)      |

#### 7. 기타부문(其他部門) 121점

- |                              |               |
|------------------------------|---------------|
| 1. 교통운반기구(交通運搬器具) 13         | 2. 상역구(商易具)12 |
| 3. 의약구(醫藥具) 7                | 4. 형매구(刑枚具) 8 |
| 5. 선(扇), 선종(扇鐘), 호패류(戶牌類) 57 | 6. 34         |

(1968년 12월 현재)

이상(以上) 수집(蒐集)에는 세가지 길이 있었다.

그 첫째는 시내(市內) 골동상(骨董商)에서의 수집(蒐集)이고, 둘째는 발족(發足) 당시 주로 창덕궁(昌德宮), 창경원(昌慶苑)의 유물중(遺物中)에서 민속품(民俗品)에 해당하는 것을 이관조처(移管措處)한 것이고, 셋째는 지방(地方)에 나가서 수집(蒐集)해 온 것이다. 지방(地方)에 나가서 광범(廣範)히 민속품(民俗品)을 수집(蒐集)해 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方法)이겠으나 인원(人員)의 부족(不足)과 행정조처상(行政措處上)의 난점(難點), 창고문제(倉庫問題) 부피 큰 작품(作品)의 운반문제(運搬問題) 등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부문(生産部門)의 농경구(農耕具) 직조구(織造具)들 방대(龐大)한 과정(過程)과 수효(數交)

의 민구(民具)들이 지금은 아직도 그 수집(收集)이 용이(容易)할 일들이 차일(此日) 피일(彼日) 미루어지고 있다. 한편 육사박물관(陸士博物館),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의 전시(展示)들이 있기는 하나 무구(巫具), 악기류(樂器類)들이 아직 수집(蒐集)이 부진(不振)한 것도 유감(遺憾)이다.

이상(以上) 총수(總數)만을 몇 박물관(博物館)들과 비교(比較)하기 위하여 그 수자(數字)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박물관(博物館) 5700점(동박물관제공(同博物館提供))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박물관(博物館) 6581점(동박물관제공(同博物館提供))

(내역(內譯)) 역사참고자료(歷史參考資料) 413

민속품(民俗品) 2683

무구(巫具) 136

자기류(磁器類) 672

토기(土器) 502

고고자료(考古資料) 435

서화(書畫) 1543

기타(其他) 192

(1965년도 현재(現在))

이화여자대학교(梨花女子大學校) 박물관(博物館) 2700점(동박물관제공(同博物館提供))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본관(本館) 53997(936점 전시(展示))

경주분관(慶州分館) 3806(585점 전시(展示))

부여분관(扶餘分館) 469(284점 전시(展示))

계 62450(2618점 전시(展示))

(1965년 9월 3일 현재(現在))<sup>1)</sup>

한편 사설(私設)인 제주도민속박물관(濟州道民俗博物館)(1964년 9월 30일 개설)의 수장품 수(收藏品數)는 1966년말 현재(現在) 1500여점이고, 또 한편 일본(日本) 문부성사료관(文部省使料館)은 기구(器具)들을 주(主)로한 순수(純粹)한 민속품(民俗品)만으로 1만 5천여점을 수집(蒐集)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一部)에는 동남아제국(東南亞諸國) 대만(台灣) 만몽(滿蒙) 한국(韓國)의 민구(民具)들을 국제적(國際的) 비교연구(比較研究)의 안목(眼目)으로 수집(蒐集)하고 있었으며 예컨대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지정(指定) 제2호(1955년 지정) 「배부운반구(背負運搬具) 컬렉션」 62점중에는 한국(韓國)의 「지게」까지 포함(包含)시켜서 이것을 귀중(貴重)한 컬렉션이라고 말하고 있었다.<sup>2)</sup> 이들의 수장품(收藏品) 총수(總數)는 우리 현재(現在) 총수(總數)의 20배를 훨씬 넘고 있었으며 그것을 사료관(使料館)에 수만점의 고문서(古文書)들도 같이 수장(收藏)하고 년중 일정온도(一定溫度)의 조절등시설(調節等施設)을 갖추고 소중히 보존(保存) 조처(措處)를 하고 있었다. 민속관(民俗館)의 수장품(收藏品)은 아직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박물관(博物館)의 분류항목중(分類項目中)의 민속품(民俗品) 수(數)보다도 훨씬 적었다.

1) 國立博物館紹介 文化財2號 1966年

2) 重要民俗資料調査報告 第一集 日本文化財保護委員會 1961年

2. 관람객(觀覽客)

민속관(民俗館)은 개관(開館)하고 이제 만2년을 좀 넘었다. 아직 일반(一般)에게 고루 알려지지 않았으나 1968년도의 그 관람객수(觀覽客數)는 다음과 같다.

1월	535	9월	8252
2월	659	10월	21918
3월	1324	11월	4064
4월	14742	12월	251(17일현재)
5월	6150	계	62531
6월	1780		
7월	1697		
8월	1059		

	서울본관(本館)	경주분관(慶州分館)	부여(夫餘)분관	공주(公州)분관	단체(團體)(연료(燃料))	계(計)
1月	3501	1198	190	68	150(25)	5107
2月	4316	1295	268	118	80	6077
3月	5525	1724	476	231	150	8106
4月	15563	8801	4755	438	23119	52686
5月	10863	10525	6230	418	23268	51304
6月	7906	3130	741	154	154	12848
7月	5071	2110	975	177	798	9131
8月	6877	2778	1105	295	160(39)	11254
9月	6194	3247	581	163	7576	17761
계(計)	65816	34808	15331	2062	56218(64)	174299

이것을 제시(提示)된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과 비교(比較)하면 다음과 같다.(년도 월분까지)<sup>3)</sup>

한편 제주도(濟州道)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 1965년도의 개관일수(開館日數) 320일간의 유료관람인원(有料觀覽人員)은 일반(一般) 17,000학생(學生) 외국인(外國人) 513 계 30.513인으로 대표금액(代表金額)은 15만원이었다고 한다. <sup>4)</sup>

민속관(民俗館)의 경우 관람객수(觀覽客數)가 춘(4,5월) 추(9,10월)의 4개월간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은 궁원내(宮苑內)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소풍계절(逍風季節) 때문이고 아직껏은 무료공개(無料公開)를 하고 있는 탓이겠다. 그러나 한편 고궁(古宮)치고는 경복궁(景福宮)들보다 관람객(觀覽客)이 훨씬 적은 곳이다. 그리고 아직 일반(一般)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탓도 있다.

박물관(博物館)이 가지는 임무(任務)나 기능(技能)중에서 학술자료적(學術資料的)인 면은

3) (1)과 같음.

4) 秦聖麟氏提供 1966年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과 민속관(民俗館)은 성격(性格)이나 분야(分野)가 다르겠지만 일반국민(一般國民)에게 교육(敎育) 계몽면(啓蒙面)은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이 보다 폭이 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대(現代)의 국민생활(國民生活)과의 결부면(結付面) 고유문화(固有文化) 재창조(再創造)의 기반역할(기반역할)등에서도 각급학교(各級學敎) 학생(學生) 교육면(敎育面)에서다 그러리라 생각된다. 한편 시골 노인(老人)들은 여기 들어오면 오랜 타향(他鄉)살이에 시달리다 뜻밖의 고향(故鄉)을 만난 것처럼 반가와 하고 호일에 다시 친구(親舊)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 들은 물레를 만지러 들어가고 디딜방아를 쓰다듬고 하기도 한다.

### 3. 직원(職員)

민속관(民俗館)의 현재(現在) 직원(職員)은 상근전문위원(常勤專門委員) 1명 학예원(學藝員) 1명 정리수(整理手) 1명 경비원(警備員) 3명의 도합(都合) 6명으로서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문화재과(文化財課)에 소속(所屬)되어 있으며 문화재과(文化財課) 지정계(指定係)에서 민속분야(民俗分野) 행정(行政)을 담당(擔當)하며 겸하여 민속관(民俗館)의 제반(諸般) 운영(運營) 관리(管理)등의 행정(行政)을 담당(擔當)하는 학예사(學藝士) 1명이 배정(配定)되어 있다.

이것을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의 44명 사설(私設)의 제주도(濟州道)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 28명 건물(建物)의 5명 (관장(官長) 1명 총무(總務) 1명 종사원연구원(從事員研究員) 3명) 그리고, 현재(現在) 문교부(文敎部) 소속(所屬)으로서 개설준비중(開設準備中)에 있는 국립과학관(國立科學館)의 85명(연구직(研究職) 12명 사무직(事務職) 6명 임시직(臨時職)으로서 수위(守衛) 3명 소제부(掃除夫) 4명 타이피스 3명 사환(使喚) 4명 문서수발(文書受發) 1명 사무보(事務補) 2명)에 비하면 아무래도 너무나 적은 수(數)가 아닐수 없다.

민속(民俗)이라고 한마디로 말은 해도 그 범위(範圍)와 성격(性格)은 인문과학(人文科學) 사회과학(社會科學)의 전반(全般)에 광범(廣範)한 것이다. 전기(前記)한 대로 1. 사회구조(社會構造) 2. 민간신앙(民間信仰) 3. 산업기술(産業技術) 4. 의식주(衣食住) 5. 민속예술(民俗藝術) 6. 구비전승(口碑傳承)등의 조사(調査)가 병진(併進)돼야 하는데 1은 사회학(社會學) 2는 종교학(宗敎學) 3은 농수산학(農水産學) 4는 가정학(家政學) 5는 음악무용(音樂舞蹈)등 6은 문학(文學) 그것이 되기도 하고 보조과학(補助科學)이 되며 또 그 모두가 갈려서 예컨대 4의 의식주(衣食住)는 삼분야(三分野)가 다 동일인(同一人)으로서는 불가능(不可能)한 것이며 그 연구(研究)는 현재성(現在性)과 역사성(歷史性)을 언제나 병합(併合)해야 된다. 조만간에 민속관(民俗館)의 직제(職制)는 마련이 되어겠는데 육분야(六分野) 연구직(研究職)이 다 배정(配定)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現在) 민속(民俗)은 초창기(草創期)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차후(此後)의 발전책(發展策)을 위해서도 전기(前記)이 빈약(貧弱)한 현수장품수(現收藏品數)에에 봤듯이 먼저 수집(蒐集)이 필요(必要)한데 인력(人力)의 부족(不足)은 필연적(必然的)으로 심의위원회(深意委員會)를 중심(中心)해서 시내(市內) 골적상(骨適商)에 장롱(櫥籠)을 위주(爲主)한 골동수집적(骨董蒐集的)인 다소(多少) 비중면(比重面)에서 어긋난 방향(方向)을 취(取)하는 결과(結果)가 된다. 민속관(民俗館)답게 농촌(農村), 산촌(山村), 어촌(漁村)들의 전기(前記) 육분야(六分野) 조사(調査)가 병진(併進)되며 그 생활기구(生活器具)들이 동시(東詩)에 수집(蒐集)되고 보고, 진열(陳列)들이 돼야겠기에 연구성(研究性)에 체력(體力)이 겸비(兼備)된 상당수(相當數)의 인물(人物)이 필요(必要)할 것으로 여겨진다.

#### 四. 결론(結言)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으로서 세계적(世界的)으로 유명(有名)한 것에 스웨덴 북방박물관(北方博物館)과 스칸센구릉의 야외박물관(野外博物館)(The Nordiska Museet and Skansen)이 있다. 3층(三層) 전시실(展示室)이 일층(一層)에는 농가생활(農家生活) 상태(狀態)의 침대(寢臺)나 로변모양(爐邊模樣)들의 지방별분류전시(地方別分類展示) 이층(二層)은 종류별전시(種類別展示), 삼층(三層)은 시대별전시(時代別展示)로 일목요연(一目瞭然)하며, 스칸센구릉에는 각 지방(地方)의 식물(植物) 이식(移植), 특유동물(特有動物) 사양(飼養)으로 동식물원(動植物園)을 겸한데다가 농가(農家) 옛 예배당(禮拜堂) 풍차(風車)등의 숲사이로 보이며 각 지방형(地方型) 농가(農家)에서는 지방(地方) 주민(住民)들이 이주(移住)하여 각종작업생활상(各種作業生活相)등을 보존(保存), 관람(觀覽)시키며 향토요리(郷土料理)들을 향토식(郷土式), 써비스로 제공(提供)한다고 한다. 하제류스(Artur Hazelius 1833~1901)라는 일개인(一個人)의 소사업(小事業)에서 현재(現在)는 국민(國民)으로 백(百)을 넘는 건물(建物)에서 년중 갖가지 행사(行事)로 성황(盛況)을 이루는데 스톡홀름 시내(市内) 중심지(中心地)에서 17분거리에 넓은 면적(面積)을 갖고 있다 한다. 이러한 박물관(博物館)은 노르웨, 핀란드 러시아의 모스크오, 레닝그라도 등에도 있고 레닝라드의 박물관(博物館)은 천문(天文)의 학예원(學藝員)만으로도 80명이 넘든다고 하고<sup>5)</sup> 스웨덴에 못지 않은 훌륭한 것이라고 한다.<sup>6)</sup>

가까이 일본(日本)서도 공사(公私)의 박물관(博物館)은 백(百)을 상회(上廻)할 것이라고 하며<sup>7)</sup> 전기(前記)한바 문부성(文部省) 사료관(史料館)은 민구(民具)만 4만5천여점을 가졌고 지금(至今)은 야외박물관(野外博物館)도 7.8개가 될 것이라 한다. 그 중 일례(一例)로 애화현(愛和縣) 견산시(犬山市)의 「명치촌(明知村)」은 명치시대(明治時代)의 전진(前進)의 기상(氣象)을 기념(記念)하고 계승(繼承)하기 위하여 「명철(名鐵)」이라는 일개 철도회사(鐵道會社), 주관(主管)으로 북해도(北海道) 찰황(札幌)의 석조(石造) 2층(二層) 우편국(郵便局)(명치년건립) 내목대장(乃木大將) 학습원(學習院) 원장(院長) 시대(時代) 관사(官舎), 육연대(六聯隊) 병사(兵舎)(불식(佛式))명치최고(明治最古)의 목제우편통(木製郵便筒), 경도(京都) 북야록(北野綠)의 전전전차(명치촌(明治村) 교통기관(交通機關)으로 사용(使用)) 형무소(刑務所)(여관(旅館)으로 사용(使用))등 명치시대(明治時代)것만을 수집(蒐集) 공개(公開)하여 승경지(勝景址)에서 관람객(觀覽客)을 끌고 있다.<sup>8)</sup>

현대(現代)는 사회(社會)의 완전(完全) 전환면(轉換面)에서 일찍이 볼수 없던 급진(急進)의 시대(時代)이다. 목재(木材) 섬유재(纖維材)들 돌보지 않는 민속품(民俗品)들은 전기(前記)한 대로 석기시대(石器時代)의 석재(石材)인 석기유물(石器遺物)보다도 희귀(稀貴)해진 현상(現狀)이 이미 일부(一部)에는 와 있는 것이다. 이상 외국(外國)의 실정(實定)이나 국내(國內)의 다양적(多樣的)인 사정(事情)과 오늘날의 시대성(時代性)등을 참작(參酌)해서 민속관(民俗館)이 현상(現狀)을 기반(基盤)으로 한 미미(微微)한 발전책(發展策)을 가지고는 시대(時代)의 요구(要求)에 부응(副應)하지 못하겠다는 결론(結論)을 얻은 우리는 지금 세계(世界) 각처(各處)의 재외공관(在外公館)을 통해서 자연사박물관(自然史博物館), 과학박물관(科學博物館), 미술

5) 泉靖一 월드노오트 1967年

6) 濱田青陵 考古學八門 1943年

MatRehuberg : The Nodiska Museet and Skansen 1957 Gertrud Serner : A key to the Museums of Sweden 1960

7) 三木隆民 日本の博物館 1966年

8) 澁澤秀雄 的治は近く 文藝春秋 1963年 7月號

박물관(美術博物館)들을 제외하고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 민족학박물관(民族學博物館) 종합박물관(綜合博物館) 참고관(參考館) 농업관(農業館) 향토관(鄉土館) 종류(種類)의 안내서(案内書) 종류(種類)부터라도 모아서 참고(參考)하여 확충계획(擴充企劃)을 하려고 그 준비(準備)를 진행(進行)하는 중에 있다. 우리에게서 서울 주변(周邊)에 수십만평(數十萬平)씩 규모(規模)의 왕릉(王陵)이 여러곳 있는데 그 중에서 위치(位置)와 지형(地形)등이 나은 것을 하나 선정(選定)해서 필요(必要)한 시설(施設)들과 각종행사(各種行事)를 전개(展開)할 수 있다. 다소간(多少間)의 민속품(民俗品)은 지금 수집(蒐集)이 돼가고 있으며 또한 민속(民俗) 전반(全般)에 대한 조사연구(調查研究)와 그 기록자료(記錄資料)들도 쌓여가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이상(以上) 외국(外國)의 박물관(博物館) 상황(狀況)들이 입수(入手) 참고(參考)가 되어 우리의 민속촌(民俗村)이나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의 청사진(靑寫眞)도 이루어질 것이다. 준비(準備)는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약간(若干)의 인원(人員)과 예산(豫算)이 배정(配定)되면 우리에게도 남못지 않은 민속촌(民俗村)이나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이제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 무신도(巫神圖)

1. 산신(山神)(서산지방(瑞山地方) 무신도(巫神圖)) 원초숭배대상(原初崇拜對象)인 산악(山岳)과, 그 대상(對象)인 산신령(山神靈) 범(虎)과 그 인격화(人格化)인 산신(山神), 이 동일근원(同一根源)의 삼파생체(三派生體)가 한 폭(幅)에 그려지며 많은 신적(神的) 직능(職能)을 갖는다.
2. 사자(使者)(서산지방(瑞山地方)) 10왕(十王)의 명(命)으로 사람을 잡아가나 제상(祭床)에서 잘먹고 취해서 그냥가면 중환자(重患者)도 살아난다고 신앙(信仰)된다.
3. 오방신장(五方神將)(서울지방(地方)) 무서운 얼굴로 인간(人間)을 침해(侵害)하는 잡귀(雜鬼)들을 쫓아서 치병평안유지(治病平安維持)를 해주는 강력(強力)한 선신(善神)들이다.
4. 임장군(林將軍)(서산지방(瑞山地方)) 임경업장차(林慶業將車)으로 서해중부(西海中部) 해안일대(海岸一帶)에서 조기잡이를 위주(爲主)로한 어신(魚神)으로 신앙(信仰)된다.
5. 용궁부인(龍宮夫人)(서울지방(地方)) 흔히 약수(藥水), 영천(靈泉)등에 모셔지며 용궁애기 씨라고도 한다. 신라(新羅) 시조왕비(始祖王妃)가 알영천(闕靈泉)에서 나온 용(龍)에서 탄생(誕生)됐다는 것도 이런 신화화(神話化)로 간주(看做)된다.
6. 삼불제석(三佛帝釋)(서울지방(地方)) 잉태(孕胎), 안산(安産), 양육(養育) 등 옛날의 소아과(小兒科), 산부인과(産婦人科) 의사격무신(醫師格巫神)의 불교복합화(佛教複合化)이다.

### 호패(號牌)

호패(號牌)는 16세 이상(以上)의 모든 남자(男子)가 차던 것으로 일종(一種)의 신분증명(身分證明)이다. 이는 신분(身分)에 따라 다섯가지 종류(種類)로 구분(區分)이 되며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의하면 2품이상(二品以上)은 상아(象牙)나 녹각(鹿角), 4품이상(四品以上)은 황양목(黃陽木), 5품이상(五品以上)은 황양목(黃陽木)이나 자작목(資作木), 7품이하(七品以下)는 자작목(資作木), 서인이하(庶人以下)는 잡목(雜木)이고, 속대전(續大典)(영조대간행(英祖代刊行))에 의하면 2품이하(二品以下)은 아패(牙牌), 3,4품(三四品)은 각패(角牌), 5품(五品)의 생원(生員)의 생원(生員), 진사(進士)는 황양목패(黃陽木牌), 칠품이하(七品以下)의 잡직(雜職), 서인(庶人), 서리(胥吏)는 소목방패(小木方牌) 서인이하(庶人以下)의 공사천(公私踐)은 대목방

패(大木方牌)로 되어 있으나 그 주요(主要)한 존재(存廢)의 역사(歷史)만도 5次나 거듭되어 세부적(細部的)으로 복잡(複雜)하다. 이것은 ① 호구(戶口)와 민정수(民丁數)의 파악(把握) ② 직업(職業), 계급(階級)의 구분(區分) ③ 신분증명(身分證明) 등을 목적(目的)삼은 것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군역(軍役), 호적편성(戶籍編成) 등에 중점(重點)이 놓였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만 하면 군역(軍役), 국역(國役) 등에 뽑힌다고 백성(百姓)들이 회피(回避), 위조(僞造), 교환(交換) 등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國家的) 혼란(混亂)이 생기고 수차(數次) 중단(中斷)되기도 했었다.